

유다서 묵상 5
(10/29/2020, 목)

찬양: 368(486)(주 예수여 은혜를)

성령님의 조명을 위한 기도: 다함께 말씀을 읽고 나누고 묵상할 때 주시는 성령님의 조명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말씀읽기: 유다서 1:11

말씀에 대한 이해

사도유다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비유를 통하여 영지주의 이단자들이 심판 받을 존재들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씀 속에 담아 주신 메시지

사도유다는 11 절에서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라고 시작합니다. 이 표현은 죄와 타락을 일삼고 사람들을 영적인 파멸에 이르게 하는 심각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던 이단자들을 향한 심판의 선언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유다는 먼저 그들이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11 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인은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살인자이며 자기 동생을 죽인 사람입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드린 예배는 행위에 불과했고, 그 속에 참된 믿음과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습니다. 아울러 그의 예배 행위는 삶으로의 예배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그 삶은 하나님의 꾸지람을 들을만큼 타락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예배의 형식은 있었으나 본질적으로 예배라고 할 수 없는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아벨의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자 분노를 참지 못하고 아벨을 죽임으로,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스스로 증명하고 말았습니다. 사도요한은 **요일 3:12** 에서, “**가인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성경에 언급되지 않은 가인의 삶을 자신의 책 『유대 고대사』에 기록했습니다. 요세푸스에 따르면, 가인은 아벨을 죽인 후에 폭력을 통해 남의 재산을 빼앗아 자신의 부로 축적했고, 육체적 쾌락과 사치와 향락에 빠지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가인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았으나 실상은 믿음이 없었고, 그의 삶은 부패와 타락에 젖어 그의 삶으로 하나님을 거역했을 뿐만 아니라, 동생을 죽임으로 사람에게도 해악을 끼치고 관계도 완전히 파괴된 인물이었습니다. 유다는 당시 영지주의자들을 가인과 연결 지으면서 그들이 가인의 길에 행했다고 말씀합니다.

(2) 유다가 두 번째로 언급하는 사람은 발람입니다. “삿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 갔으며”(11 절). 발람이라는 인물은 메소포타미아 출신의 일종의 예언자 혹은 점쟁이 같은 인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후에 모압 평지에 주둔하고 있을 무렵,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에게 위협을 느낀 나머지 발람에게 댕가를 제공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민 22-24 장). 비록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발람의 저주는 실패했지만, 그는 재물에 현혹되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시도한 사람이었다.

성경은 발람에 대한 매우 부정적인 평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 22:7 에서는 발람이 받았을 “**복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 23:4-5 에서는, “**4.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보다미아의 브돌 사람 브울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5.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시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라고 기록합니다. 민 31:8 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사실을 기록하면서 브울의 아들 발람을 죽인 사실을 언급합니다.

아울러 성경은, 발람은 이스라엘이 바알브울에서 음란하게 행하고 우상숭배를 하게 했다고 기록합니다. 민 31:16 -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브울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서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염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사도 베드로 역시,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브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데 그는 불의의 삶을 사랑하다가 16.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 하였느니라”(벧후 2:15-16)고 말씀합니다.

한 마디로 발람의 길은 뇌물에 눈이 어두워 함부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반하는 영적 저주를 행하는 사람들의 길입니다. 발람은 겉으로 보면 영적인 무엇인가를 알고 행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사리사욕을 취하는 마음이 있고, 자신이 가진 어떤 능력으로 사람들을 파멸에 이르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물로 볼 수 있습니다. 유다는 이러한 발람을 영지주의자들의 원형처럼 묘사합니다. 실제로 영지주의자들은 당시 귀족이나 부유층을 중심으로 확산되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부유층과 영지주의자들 사이에 발락과 발람이 그랬던 것처럼 물질과 관련된 부패한 결탁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유다는 영지주의자들의 모습을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 갔으며”(11 절)라고 말씀합니다. 칼빈은 “몰려 갔으며”라는 말은 “그들의 방탕이 독 터진 물처럼 쏟아진다는 뜻이다”라고 했습니다.

(3) 유다는 고라라는 구약의 인물도 언급합니다.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11 절). 고라는 민 16 장에 기록된 것과 같이, 다단과 아비람과 같이 모세를 대적했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고라는 모세의 영적 지도력에 대항한 인물로서 끝내 땅이 갈라지는 하나님의 징계로 심판을 받았습니. 고라의 무리가 모세를 대적한 것은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대적 행위로 인해 공동체는 극심한 분열과 혼돈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유다가 영지주의자들을 고라에 비유한 이유는, 신성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잘못과 함께 그들로 인해 교회가 분열하고 혼란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단들이 성도들을 미혹하는 전형적인 방법 중의 하나가 기성 교회들과 목회자들을 비판하면서,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유일한 구원의 길인 것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 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종류의 문제들 때문에 성도들이 상처를 받는 상황에서, 이단들의 수법은 교회에 실망한 성도들의 마음에 파고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단은 시대가 혼란스럽고 교회가 위기 속에 있을 때 그 틈을 파고 들며 더욱 기승을 부립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보며 이단 자체를 경계하고 조심할 뿐만 아니라, 바른 신앙과 영성으로 우리 자신이 먼저 바로 서고, 아울러 교회 자체의 개혁과 정화를 끊임 없이 추구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사람에 대한 기록은, 비록 영지주의자들의 악행의 원형을 제공해 주는 인물들로 해석할 수 있지만, 동시에 우리 자신도 주의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들의 영적인 모습, 그리고 삶의 모습을 가질 수도 있음을 알게 하는 경고의 말씀으로 받게 됩니다. 오늘도 말씀을 품고 주님과 깊이 동행하심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 주신 말씀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 주신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함께 나눌 기도제목

1. 가인의 길, 발람의 길, 고라의 길을 따르지 않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하옵소서.
2. 흔들리고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말씀과 성령의 역사 가운데 바로 서고 더욱 성숙해 감으로, 이 땅의 진정한 영적 방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3. 대형 산불로 고통 당하는 미국 서부 지역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빠른 시간 안에 진압되며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4.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 합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게 하옵소서(시 19:14).